



700차 수요시위 교양자료 - 일본군 '위안부'

3월 15일, 제 700차 수요시위....

700번째 그 피터지는 외침-

당신의 응답은, 몇번째입니까?

3 2006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06. 3/15,
제 700차 수요시위

다가오는 2006년 3월 15일.

1992년 1월 8일 시작한, 그녀들의 한 서린 외침이 700차를 맞이합니다.

그 대단한, 그러나 기념하고 싶지 않은 700차의 역사동안
그 외침에 대한 당신의 응답은... 과연 몇번째입니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시위가 3월 15일로 700차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할머니들이 차가운 길바닥에 나오게 한 것은 아마도 우리들의 실천이 부족했나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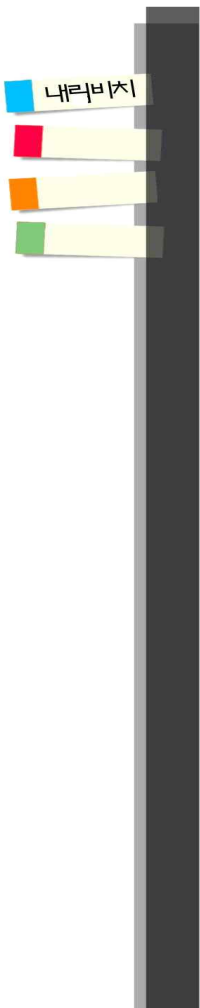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시다.

우리 청년학생들이 결심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줍시다.

700차 수요시위 우리들의 힘으로 만들어 가봅시다.

각 단위에서의 교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12기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



일본군 '위안부' 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 과정

수요시위란?

피해자 증언

2006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 과정

우리의 과제

1. 일본군 '위안부'란

일본군 '위안부'란 일제 식민지 시대(주로 1920-30년대)에 일본군 위안소¹⁾로 연행되어 강제로 성폭행당한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들을 '정신대'라는 말로 불려왔다. '정신대'는 전시체제 아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특별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직 등을 지칭한 일반명사였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1943년 이후엔 여자정신대 혹은 여자근로정신대에 한정해서 쓰이는 경향이 나타나다가 마침내 1944년 8월에 이르러 여자정신대 근로령이 내려지게 되었다.



이후부터 정신대란 말은 전쟁 노동력으로 동원된 여자에 한해서 쓰이게 된다.

'여자정신대 근로령'에 의거하여 조직된 여자근로정신대는 남성들의 전쟁 동원으로 인해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여자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원래 다른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일본 군인들의 성 욕구를 채워 주기 위해 집단적 성행위 장소인 군대 위안소(위안부들을 집단적으로 감금해 두고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오로지 정욕만을 채우는 곳이었다)를 제도화하고 식민지와 점령지에 있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전선으로 수송, 체계적

으로 성노예의 역할을 강요했다. 강제 동원된 여인들은 위안소에 배치되어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야 했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라고 불리어졌다. 하지만 종군위안부라는 명칭은 강제성보다는 자발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절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

국제적으로는 '성노예' 또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면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다. 우리는 현재 이들을 일본군 '위안부'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마스크를 통해 일반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인 '정신대'는 이름 그대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의미로 썼던 '정신대'라는 용어는 일제 식민지 시기인 1940년대의 신문기사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여자들에게 '정신대'는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여자근로정신대'를 의미했다. '여자근로정신대' 중에서 다수의 여자들이 일본군에게 끌려가 '위안부'로 이용되었기에 '정신대'와 '위안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쓰이게 되었으나 정확히 따지면 같은 의미가 아닌 것이다.

일제 시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조선인 여성들은 모두 2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서 대다수가 사망했으며 1992년부터 한국 정부에 신고하기 시작한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은 2000년 12월까지 모두 158명에 불과하다. 이중에서도 돌아가신 분이 40 명가량이고 실제로 생존해 있는 분은 정부의 통계에 들어 있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141명 정도이다. 현재 126분이 할머니가 생존해 계신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 과정

1) 위안소 - 위안부들을 집단적으로 감금해 두고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오로지 정욕만을 채우는 곳, 위안소는 군부대가 주둔지에 신축하기도 하고, 원주민 가옥을 고쳐 이용하기도 했다. 부대가 이동하거나 전쟁중일 때는 군인 막사나 초소, 참호, 군용트럭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1) 한국 정부의 대응

먼저 한일간의 식민지 지배 배상 요구는 1965년 박정희 집권 당시인 제3 공화국에서 이른바 김종필-오히라(大平正芳) 각서²⁾와 한일기본조약으로 일단락되었다고 주장되는 점이다. 이것이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계속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 때 ‘일본의 전쟁 책임문제’가 한국 내에서 거론되면서 강제 연행자의 명부 작성을 일본 정부에 협조 요청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65년 “일한청구권, 경제협력협정”에 이미 모든 보상을 다 끝냈으며 ‘보상에 대신하는 어떤 조치’를 생각해보겠다고 답하였다. 또 1991년 12월 6일, 동경 지방재판소에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군위안부 출신 원고측이 “한일 협정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여, 정부간의 교섭에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한국 국민 개인은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일본의 가토 관방장관³⁾은 “정부 관계기관이 관여했다는 자료가 발견되고 있지 않아 대처하기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91년 9월 정부는 ‘정신대 실태조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2월 외무부는 일본 대사에게 이 문제에 대한 사실을 밝힐 것을 요청하였다. 동시에 미야자와 일본 총리의 92년 1월 방한 예정에 앞서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91년 12월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아주국장회의에서 일본에 우선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리고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10개국 해외주재 공관에 관계 자료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미국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 수송, 관리 등에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발견하였다. 이 문서는 인도-버마 전선의 미 전시정보국 심리전팀이 미얀마의 미트키나에서 일본군이 도망칠 때 붙잡힌 조선인군위안부 20명과 위안소 관리자 2명을 심문하여 작성한 조서이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주오대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가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에서 찾아낸 공문서 등이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되어 일본을 압박하였다.

결국 92년 1월에 이뤄진 한일정상회담에서 노태우대통령의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에 따라 일본의 반성과 사과가 있었다. 이어서 이상옥 외무장관이 “이 문제는 당시 청구권 교섭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때(92년 1월) 정부는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을 설치, 계속 협의하며 전국의 시 군 구청에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월 25일부터 6월25일 사이에 신고를 받았다. 그 결과 총 390건 중 근로정신대 235명, 군위안부 155명이 신고하였고 그 중 생존자는 각각 139명과 74명이었다. 이후에도 이같은 피해자의 신고와 증언은 계속 이어졌으며, 한일 역사교과서에 사실을 올바르게 기록, 교육하여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밝은 미래의 한일 관계를 가꾸어 가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을 밝혔다.

2) 김종필-오히라 메모는 한일협정 체결 2년 7개월 전인 1962년 11월 21일에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의 회담에서 합의작성한 것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협상의 물꼬를 튼 한국과 일본의 비밀문서를 말한다.

김-오 메모의 핵심 내용은 대일 청구권 해결 규모를 무상공여 3억 달러, 유상공여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김-오 메모는 자금 제공의 명목에 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아 한국과 일본이 각자 그 명목을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일본은 ‘청구권’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이 돈을 ‘독립축하금’으로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김-오 메모는 청구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개인 청구권 문제가 소멸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3) 관방장관은 직제는 장관이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된다. 주로 하는 일들은 총리를 보좌하며 총리가 주 관하는 일들에 대한 실무적인 일들을 담당하고 조각에 참여하기도 한다.

93년 3월 김영삼 정부는 진실 규명과 사과를 받되 배상 청구는 않겠다고 한 후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과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등을 지급하였다. 95년에는 교육부 산하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청산하지 못한 일제 시기의 문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후 98년 5월 김대중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한꺼번에 3,15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불하였으며 위안소에 관련한 일본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

국회에도 [정신대진상소위원회]를 만들어 96년 6월 이미경 의원 외 여성의원 8명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고 97년 2월 정대협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해결을 촉구하였다. 5월에는 “한일역사교과서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술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02년 발행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본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9명의 의원이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일본에 국제법적 책임을 요구할 것도 검토하였으며,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에 대하여 90%가 넘는 270명의 의원이 반대 서명을 하였고 그 결과를 일본 총리와 의회에 전달하였다. 동시에 전범자 출입국 규제 방안 및 국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매월 생활지원금이 5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대일 관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가 없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대일 노선은 노무현 새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고 다만 여성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놓지 않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2) 일본정부의 태도

이에 일본정부는 계속 무시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일본정부가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1990년 6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의원이 위안부의 조사를 정부에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때 노동성 직업안정국장은 “중군위안부에 대해서는 옛날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민간업자가 그러한 분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 같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정을 밝히지는 못한다”고 대답하여 일본군의 관여를 전면 부정하였다.

그러나 1991년 여름,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정책의 피해자임을 밝히고 그 해 12월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또 그 직후인 92년 1월에는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교수가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발견한 위안소 관련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일본정부는 더 이상 군의 관여를 부정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형식적 사과를 하기에 이른다. 이어 1992년 7월과 다음해 8월에는 위안부문제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제1차 발표에서는 위안부의 모집, 위안소의 설치, 경영, 감독 등 제목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제2차 발표에서는 방위청, 법무성, 외무성, 문부성에서 발견된 자료를 비롯하여 국립 공문서관, 국회도서관, 미국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2차 조사결과와 함께 관방장관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거기서는 위안소가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립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것을 담당하였으나, 그 경우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여진 사례가 수많이 있고 또 관헌 등이 직접 여기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고 하여 군의 관여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였다. 특히 식민지 조선에서의 위안부 동원을 들어,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과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졌다고 하여 불충분하나마 강제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 문제가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상처 준 문제이며 그 피해자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고 하였다.

그러나 두 번에 걸쳐서 발표된 자료는 위안부정책의 전체상을 밝히기에는 너무도 적으며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구 내무성 자료, 후생성 등의 자료는 전혀 조사가 미치지 않았으며 정부 및 방위연구소 도서관에도 아직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이 두 번의 발표로 조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 수상이 내한할 때 위안부문제도 형식적으로 사과는 하지만 한국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개인 배상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하는 자세를 보여 왔다.

또 1994년 2월 한국인 피해자와 운동단체가 일본 검찰청에 위안부정책에 관여한 일본군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도쿄지방검찰청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조차하지 않았다.

1994년 여름에 출범한 사회당 무라야마 총리 시절에는 위안부문제에 관해 폭넓은 국민 참가의 길을 모색하기로 하고 이후 여당 3당으로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를 발족시켜 그 산하에 중군위안부등 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하여 1995년 7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설립한다. 이것은 위안부문제에 관해서 도의적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기금정책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이 문제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도아래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피해각국의 운동단체와 피해자들의 맹렬한 반대를 사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1992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문제에 관한 토의가 시작되자 이 문제는 유엔 창설전의 문제이며 유엔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고 이후 유엔에서 나온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1998년 4월 위안부에 대해 승소 판결이 나온 시모노세키재판에서는 재판소가 현행 헌법상 위안부처럼 극단적 인권침해일 경우 보상 입법의 의무가 일본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동안 입법의무를 게을러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국회에는 헌법상 입법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항소하였으며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됨으로써 1심의 유죄 판결조차 백지화하고 말았다.

3)국제사회의 대응

1992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문제에 관한 토의가 시작되었고 1993년 6월의 빈(Vienna) 유엔 세계인권회의에서 전시하 성노예 문제에 관하여 과거도 포함하여 모든 문제에 유엔이 대응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유엔과 국제 사회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살펴본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적으로는 '인도에 반한 죄'이며, '전쟁범죄'이다. 국제사회는 세계사에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각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을 벌여 왔다. 국제여성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을 위한 세계의 시민단체와 UN, ILO 등의 국제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전범인 일본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으로 먼저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태국, 홍콩, 일본 6개국(이후 태국이 빠지고 인도네시아가 참여)의 시민단체들의 연대활동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시민단체들은 1992년 제1회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한 후 매년 참가국을 돌려 연대회의를 열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유엔 등 국제 장에서 협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UN의 움직임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UN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UN이라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내리는 판단이 일본정부에게 강력한 힘을 갖기 때문이며, 또한 UN을 무대로 세계의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대협이 1992년 이 문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이래, 필리핀, 일본의 단체들도 인권위 산하의 소수 민족차별 및 보호 소위원회, 그리고 다시 인권 소위 밑의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 매년 참석하는 한편, 세계인권대회(1993년 비엔나)와 세계여성회의(1995년 베이징)에도 참석하여, UN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 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는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일본에서의 조사보고서'를 1996년에 제출, 이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 피해자가 고통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 즉 진상구명, 공식사죄, 역사교육, 책임자 처벌 등의 필요성을 강력히 권고했다.

다른 한편 1998년과 1999년에 인권소위원회에서도 케이 맥두갈 위원이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보고서에서 무력분쟁시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 기타 노예관행에 관한 맥두갈보고서를 발표하여 다시 한번 세계에 주지하였다. 이러한 유엔의 권고는 일본 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으나, 여전히 책임 있는 해결에까지 이르고 있지는 않다.

이밖에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정대협과 일본 단체들이 시도했으나 일본 정부의 동기가 필요한 절차에서 좌절했다. 국제법률가협회(ICJ)도 한국, 일본, 필리핀, 북한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1994년 매우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제출

하여, 일본정부에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1995년부터는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및 일본의 노동조합들이 군위안부 동원이 ILO의 강제노동금지규약 위반임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 활동은 곧 효과를 나타내 조약 및 기준 적용 전문가 위원회의 1996년, 1997년 보고서에 위안부 동원 및 착취가 강제노동금지규약의 위반이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라는 내용이 실렸다. 1999년 보고서에는 다시 그 규약 위반 사실을 확인한 위에 피해자가 고령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래도 꼼짝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 민간들이 법정을 열어 단죄함으로써 세계여론에 호소하지는 움직임도 구체화한 바 있다. 이는 베트남 전쟁 범죄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러셀 법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일본 및 아시아 피해국의 시민단체들이 연대, 협력하고 세계적인 학자, 변호사, 운동가와 함께 2000년 12월에 도쿄에서 일본군성노예 전범 국제 여성법정이 개최된 것이다.

이밖에도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우리 교포들이 모임을 만들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대학 등에서 학위논문 등의 형태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4) 일본의 기만적인 아시아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

한국을 비롯한 피해국들의 사죄와 배상 요구에 대해 일본정부가 고심하여 내놓은 안이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이다. 정대협 회원단체 모두가 이 기금에 반대하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운동으로 국민모금운동을 시작하였다. 일본의 ‘국민기금’을 무력화시키고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이 되기까지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활동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었다. 준비과정을 거쳐 1996년 10월 18일 ‘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발대식을 하였다. 이 모임에는 정대협 회원단체 뿐 아니라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굵직한 시민단체들은 거의 다 참여하였다.

이 모금활동에는 국내 최초로 주간지인 [한겨레21]뿐 아니라 한국일보, 방송사인 SBS와도 함께 하였다. [한겨레21]에서 이 ‘은겨레 돕기 운동’을 시작한 배경에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해서 해결하려는 일본의 태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직접적인 제안은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승화시켜 동아시아의 새로운 삶의 길을 열자고 한 김영호(경북대 교수)였다. 그는 [한겨레 21] 제124호(1996년 9월 5일자)에서 “정신대 할머니들을 돕는 국민적 성금운동과 21세기를 위한 동아시아 마셜 플랜을 제안”했다. 이 글을 보면 ‘국민기금’을 거부한 할머니들의 결단에 감동해서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드리고 그 운동에 지식인들이 앞장서야 하고 이미 몇몇 지식인들은 원고료나 강연료를 받지 않고 모금에 보낼 것을 결의했다고 한다.

이효재 정대협 공동대표도 그 다음호의 특별기고에서 “민간단체를 내세워 정부의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정부의 계락을 뜨거운 성금운동으로 분쇄하고 정신대할머니 돕기 운동을 아시아 시민연대운동으로 이끌자”고 호소했다. 이런 지식인들의 움직임에 이 잡지 편집진에서 먼저 성금을 모으면서 이 운동을 시작했다.

[한겨레21]의 1996년 10월 31일부터 1997년 5월 15일까지 7개월 동안의 특별한 노력에 힘입어 이번 모금은 초등학교부터 각 대학 총학생회와 동아리 단위의 모금은 물론 종교단체에서도 참여하였고 대학교수와 일본의 시민들과 단체에서도 참여한 것으로 이 문제의 공감대를 확산한 좋은 계기였다.

총 5억 5천원 1십1만원을 모은 시민연대는 이 돈을 ‘국민기금’을 받은 할머니들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나누어드리고 1997년 5월 28일 해산하였다. 이런 적극적인 운동에 힘입어 1998년 5월 한국정부가 국민기금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3. 수요시위란?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증언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생존자가 밝혀지면서 ‘위안부’문제 해결투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전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간헐적으로 진행되던 시위가 정기시위로 자리 잡게 되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699차 수요시위 장면>

그동안 수요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활동을 알려내는 장으로, 이념과 성별, 세대를 초월한 연대의 장으로,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이자 생존자, 증언자이신 피해 여성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수요일 12시면 어김없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 주마다 일어났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인사들의 만행을 규탄하거나 역사교과서 왜곡 등을 반대해 투쟁해왔고,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에 대해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기뻐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수요시위는 또한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알게된 일본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는 참회와 실천의 공간이기도 하다.

전 세계를 통틀어 최장기 시위로 기네스북에 오르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 정대협 7대 요구안**
1. 일본군 위안부 범죄인정
 2. 진상규명
 3. 국회결의 사죄
 4. 법적 배상
 5. 역사 교과서 기록
 6.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7. 책임자 처벌

4. 피해자 증언 : [문필기 할머니의 증언]

- 맏딸로 태어나

나는 1925년에 경남 진양군 지수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구멍가게를 했다. 형제자매는 2남 9녀였다. 딸 아홉 중 셋은 어렸을 때 죽었다.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작은 어머니 몸에서 아들을 낳아 여섯 살 때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그 후 어머니가 마흔한 살에 아들을 낳았다.

어렸을 때 내 이름은 미요코(美代子)였다. 나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내가 아홉 살 때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쌀 한 말을 팔아 보통학교에 넣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시나는 공부하면 여우가 된다”고 입학한 지 5일 만에 학교를 찾아와 교실에서 나를 끌어내고 책을 모두 태워 버렸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 일로 나는 아버지에게 맞기도 많이 맞았고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 큰집에 가 있었다. 다시는 공부를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야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나는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부모 안 보는 데서 공부해 똑똑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로 살아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촌사람 만나 결혼하면 내 장래가 대양 그 꼴 일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크게 가지려 하였다. 나는 정말 공부를 하고 싶었다. 내가 아들이었다면 공부를 원껏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 위로 언니들이 어려서 죽었으므로 내가 많이 노릇을 했다. 나는 아홉 살 때부터 집에서 살림하고 밭일도 하고 목화도 따고 물레질과 길쌈도 했다. 그리고 구멍가게 일도 거들었다. 구멍가게에서 삶은 고구마도 팔았는데 그 고구마 삶는 것도 내 몫이었다. 농사일은 사람을 사서 하였으므로 끼니때가 되면 밥을 해서 내다주었다. 집안일은 매우 힘들었다. 큰딸 감으로 태어난 것이 죄라 그렇게 많은 일을 해야 했다.

- 하도 공부가 하고 싶어서

진양군의 우리 마을에는 일본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50대 정도의 아저씨가 살았다. 어느 날 그 아저씨가 나에게 말하기를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곳으로 보내 주겠다고 했다. 나는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공부시켜 준다는 말에 솔깃하여 승낙을 했다. 그러나 부모에게 그 사실을 말하면 호되게 매를 맞을 것 같아 숨겼다. 그때가 내가 열여덟 살 되던 해인 1943년 가을이었다. 그때 나는 집안일도 고되고, 아버지가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게 하였으므로 집을 떠나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싶었다.

며칠 후 저녁 무렵에 그 아저씨가 찾아와 잠깐 다녀올 데가 있으니 나오라고 해서 부모 몰래 나갔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짐 싣는 트럭을 세워 놓고 있었다. 거기에는 우리 동네 파출소에 근무하는 일본인 순사 다나카도 와 있었다. 그 두 사람은 나를 트럭에 태워 부산으로 데려갔다. 집에서 입고 있던 검은 치마와 저고리를 그대로 입은 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그들을 따라가게 되었다.

나를 데려간 곳은 부산의 어떤 미용실이었다. 미용실에서 내 긴 머리를 자르려 해서 못 자르게 반항했으나 결국은 잘랐다. 그 후 우리 동네 아저씨는 나를 일본인 순사 다나카에게 넘겨주고 가면서 공부시켜 줄 테니 말 잘 들으라고 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은 후 같이 있던 조선인 여자 네 명과 함께 부산역을 출발하였다. 우리가 탄 기차는 민간인이 타는 칸도 있고 군인이 타는 칸도 있었는데 우리는 군인 칸에 탔다. 일본 군인이 우리를 인솔해갔는데 그들은 우리들을 따로따로 앉혀 서로 이야기도 못하게 하였다. 서울, 평양, 신의주를 거쳐 만주로 들어갔다. 가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대여섯 명의 우리 같은 조선인 처녀들을 또 태웠다.

- 반항하며, 맞으며, 당하며

기차에 같이 타고 갔던 우리들은 모두 만주에 있는 군위안소에 배치되었다. 위안소가 있었던 지명과 부대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곳의 겨울은 매우 길고 아주 추웠다. 여름은 짧았고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 같았다. 부대에 도착했을 때에도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조차도 몰랐다.

위안소에는 30 명가량의 위안부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조선인 위안부들이었다. 주로 이북여자들이 많았고 그 외에도 부산 사람이 있었다. 위안부들은 대개 18~19세 가량 되었다. 위안부들 중에는 학교 다니다가 끌려온 사람도 있었다. 내 이름이 미요코였기 때문에 위안소에서는 나를 '미짱'이라고 불렀다. 나는 기요코와 가장 친했다. 얼굴이 가름하고 잘 생긴 기요코는 평양 기생이었는데 좋은 곳에 소개시켜 준다는 말에 속아서 위안부가 되었다고 했다. 위안소에는 위안부들 외에 이북이 고향인 조선인 남자 두 명과 청소, 심부름 등을 하는 중국사람 한 명이 있었다.

위안소에서 우리를 감독하고 돈표를 모아서 계산하는 일을 하는 조선인 남자 두 명이 있었다. 그들은 제복을 입고 있었다. 옷 색깔은 노랑에 풀색이 섞인 색이었고 가슴에는 배지를 달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우리들을 괴롭히지는 않았으나, 키가 작은 또 다른 군속은 우리를 회초리로 때리고 지독하게 굴었다. 특히 위안부들이 일본인 군인들과 싸우거나 군인을 상대하지 않으려 하면 심하게 때렸다.

위안소는 일본식 집이었는데 위안소 주변에는 부대가 있었다. 위안소 건물은 'ㄴ'자 형태이고 2층집이었는데 1층과 2층을 모두 위안소로 사용했다. 위안소의 간판은 있었으나 글을 몰랐기 때문에 뭐라고 씌어 있었는지 모른다. 위안소 건물 주위를 둘러싼 담도 있었다. 1층에는 조선인 남자 두 명의 숙소와 식당이 있고, 2층에는 위안부들의 방이 있었는데 다다미 한 장 반 정도의 크기였다. 난방은 밖에서 한쪽 벽으로 석탄을 때서 벽이 따뜻해지게 하는 폐치카 방식이었다. 위안부 한 사람이 한 개의 방을 사용했다. 방안에는 이불과 옷걸이, 화장품 등이 있었다.

처음에 위안소에 도착하자 성병이 있는지 처녀인지 등을 검사했다. 그 후 군의는 나에게 몇 달 동안 간호부일을 시켰다. 그래서 부상병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로 감는 일을 배워서 했다. 그리고 병원의 빨래도 했다. 낮에는 병원 일을 하고 밤에는 군의가 나에게 자리 왔다. 나는 그 군의에게 처음으로 정조를 빼앗겼다. 여자에게 정조가 중요하다고 듣고 자랐고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으므로 내 몸을 버렸다는 생각에 많이 울었다. 간호부 일을 하는 동안은 군의 외에 다른 군인들은 상대하지 않았으나, 몇달 후에는 간호부일을 그만두게 하고 위안부짓을 시켰다. 그러나 위안부짓을 하면서도 부상자들이 많을 때는 가끔씩 병원에 가서 간호부일을 해야 했다.

달팽이의꿈 ...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이재용 yong@pusanilbo.com



위안부들은 모두 똑같은 원피스를 입었다. 옷은 부족하지 않게 여러 벌을 주었다. 여름을 제외하고는 방안의 한쪽 벽을 따뜻하게 난방 해 주므로 내복을 입은 적은 없었다. 빨래는 우리들이 각자 했다. 머리는 단발머리를 했었다.

식사로는 조밥과 단무지, 양배추 김치를 주로 먹었다. 아침에는 된장국이 나왔다. 일본의 국경일에는 고기반찬이 나올 때도 있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두 끼의 식사만 주었다. 밥은 우리가 교대로 했다. 위안소에 있을 때 월경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가 병에 걸린 줄 알고 깜짝 놀랐으나, 기요코 언니가 가제로 생리대를 만들어 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군인들이 많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월경 중에도 군인을 상대해야 했다. 그때는 참 괴로웠다.

평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모여 조회를 하고 가끔 군인들이 나와서 방공연습을 시키기도 했다. 조회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했는데 위안소 마당에 모여 일본에 충성하자는 황국신민의 서사를 외우고 일본 군가도 불렀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장교들이 자고 가므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대중없었다.

평일에는 군인들이 싸움터에 나가느라 낮에는 거의 오지 않고 저녁부터 왔다. 가끔 외출 나온 군인들이 낮에 왔다. 그래서 평일은 열 명 내외의 군인이 다녀갔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아침 여덟 시부터 군인들이 왔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점심밥도 주므로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었다.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군인을 받아야 했다. 저녁 일곱 시 이후에는 장교들이 왔다. 장교들은 초저녁부터 와서 긴 밤을 자고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에 갔다. 군인들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조선인이 들어오면 붙잡고 실컷 울기라도 하겠는데 3년 동안 조선인 군인은 한번도 못 보았다. 다른 위안부들 중에는 조선인을 보았다는 이도 있었다.

군인들은 위안소에 왔다갈 때 손바닥 반 만한 크기의 누런 색 돈표를 내고 갔다. 장교는 사병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표를 냈다. 어떤 군인은 돈표를 안 내려는 이도 있었다. 규정시간을 넘긴 사람에게는 돈표를 더 내놓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불쌍해서 그냥 내보내기도 했다. 돈표를 받으면 우리가 갖지 않고 우리를 관리하던 조선인 남자에게 갖다 주었다. 그러면 그 개수를 세어서 위안부 각자가 하루 몇 명의 군인을 받았나를 막대

그래프로 크게 그려 벽에 붙여놓았다. 나는 다른 위안부들보다 군인을 적게 받는 편이어서 자주 혼났다. 군인이 적은 평일은 열 명 내외를 상대했고, 토 일요일은 40~50명을 상대해야 했다. 우리는 돈표를 갖다 주기만 했지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저금을 한 적도 없고 돈을 내놓으라고 항의한 적도 없다. 군인들이 와서 따로 돈을 주고 간 적도 없었다. 평일 낮에는 주로 내 옷을 빨거나 샷쿠⁴⁾를 씻었다. 군인들이 쓰고 간 샷쿠를 안팎으로 깨끗이 씻어서 소독하고 약을 발랐다. 다시 사용했다. 처음에는 샷쿠를 씻을 줄 몰라 한 달 가량 다른 여자들 하는 것을 보며 배웠다. 대개 위안부 1인당 샷쿠 40~50개씩을 보관하고 있다가 군인들이 들어오면 끼워 주었다. 보통 세 번 사용하면 버리고 새 샷쿠로 바꾸어 주었다.

군인들 중에는 '사면발이'⁵⁾라는 '이'가 있는 사람이 많아 대부분의 위안부들이 이에 옮았다. 기요코 언니와 나는 서로 음부에 붙어 있는 이를 핀으로 떼내 주었다.

군인들은 문 밖에 줄을 서 있다가 차레로 들어왔는데 서로 먼저 들어오려고 자기들끼리 싸우곤 했다. 그들은 각반을 벗고 기다렸다. 앞 사람이 위안소 안에 오래 있으면 빨리 나오라고 문을 두드리고 법석을 떨었다. 군인들은 위안소에 한번 들어오면 사병은 삼십 분, 장교는 한 시간 있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대개는 5분 내외면 끝내고 나갔다.

군인들은 위안소에 들어와서 반드시 샷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군인들 대부분은 성병이 무서워 샷쿠를 사용했다. 군인들 중에는 자기가 직접 샷쿠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샷쿠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군인도 있었다. 나는 성병이 무서워 세상없어도 샷쿠를 해야 한다고 끝까지 버텼다. 샷쿠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사에게 이른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성병이 옮으면 서로 좋지 않으니 샷쿠를 끼라고 타이르기도 했다. 부모형제를 떠나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병까지 옮으면 어떻게 하냐고 반항했다.

군인 한 사람을 상대하고 나면 1층에 있는 목욕탕에 내려가서 소독약을 넣은 물로 밑을 씻고 와서 다시 군인을 받았다. 소독약이 목욕탕에 있었다.

군인들 중에는 여자를 오래 못 봐서 그런지 들어오자마자 사정해 버리는 이도 많았다. 나를 괴롭히거나 못되게 구는 군인에게는 죽을힘을 다해 반항했다. 그래서 군인과 싸우고 있으면 밖에 줄서서 기다리던 군인들은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욕했다. 또 군인과 싸우면 많이 맞기도 했다.

위안부 생활을 하면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어떤 군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받아 주지 않는다고 술을 먹고 와서 칼을 뽑아 들고 행패를 부렸다. 또 어떤 군인은 술 먹고 위안소에 들어와 칼을 다다미에 꽂아놓고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아 방바닥에 칼자국이 많이 있었다. 이것은 자기 하고픈 대로 실컷 하게 해달라는 위협이었다. 그러다 안 되면 칼을 가지고 덤벼드는데 이럴 때는 빨리 피하거나 혹은 누가 찾는다고 거짓말을 시켜 내보내곤 했다.

그곳에 간 지 1년쯤 되었을 때 어떤 군인이 너무 괴롭히길래 나도 화가 나서 발로 찼더니 그는 내 옷을 다 찢고 발가벗겨 때리고 칼을 들이댔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시뻘겋게 달구어진 인두 모양의 불 쭉시개를 가지고 들어와 내 겨드랑이를 지졌다. 그 상처로 석 달 동안 고생했다.

특히 긴 밤 지는 장교들은 여러 번 접촉을 요구하며 아주 귀찮게 굴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또 긴밤 지는 장교 중에는 술이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밤새도록 다 토하고 잘 되지도 않으면서 접촉을 하려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나는 비위가 상해 참을 수가 없었다.

군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왜 부모 말을 안 듣고 이 신세가 되었나 싶어 후회가 막심했다. 결국은 내 자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해만 지면 부모 생각에 가슴이 저미었다. 차라리 부모가 시집가라 했을 때 말을 들을 걸, 공부하길래 공부시켜 준다는 말에 속아 이곳에 와서 이 신세가 되었나 생각하며 절망하였다. 가족들이 미칠 듯이 그리워 매일 울고 남의 슬픈 소리를 조금만 들어도 울곤 했다. 나는 집 생각, 엄마 생각으로 마음에 병이 나서 몸져눕기도 했었다. 살고 싶지도 않았다. 그때 나를 잘 봐주던 군의는 특별히 나에게 영양제와 안정제를 주기도 했다.

4) 샷쿠=콘돔

5) 사면발이(phthirus pubis)는 음모(陰毛)에 기생하는 이로, 물리면 음부에 양진증(痒疹症)을 일으킨다.

-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으나

내가 위안소에 간 지 3년째 되는 스무 살에 종전이 되었다. 갑자기 군인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위안소에 오질 않아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련 군인들이 위안소에 들어와 총을 들이댔다.

그들은 우리의 옷을 벗기려 했다. 일본 군인들이 도망가고 나니까 이제 소련 군인들이 우리를 겁탈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를 관리하던 이복 출신의 조선인 남자가 큰일났으니 쓰던 물건 모두 팽개치고 어서 도망가자고 했다. 그래서 그와 그의 부인, 기요코 그리고 나 이렇게 네 명이 함께 얼굴에 시커멓게 칠을 하고 위안소 건물 뒤로 돌아 나와 도망쳤다. 나머지 위안부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각자 뿔뿔이 흩어졌다.

우리는 중국에서 뚜껑도 없는 화차를 타고 압록강까지 와 걸어서 흥남에 도착했다. 고향집에 돌아가니 식구들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왔다고 깜짝 놀래며 나더러 귀신이 아니냐고 했다.

- 방황의 세월

고향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이미 병으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나를 시집보내려고 성화였으나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내가 위안부였는데 누구와 결혼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내가 위안부였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공부도 하고 공장에도 취직했었다고 말했다.

나는 마음이 괴로워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고향에 돌아온 지 1년 만에 온다간다 말도 없이 집을 나왔다. 나와서는 진주에 있는 사촌 이모집에 갔다. 이모는 여관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모집에서 일을 거들어주며 지냈다. 그 후 이모집을 나와 목포, 광주, 전주 등의 술집에 있다가 남자들이 하도 귀찮게 굴어 그만두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내가 위안부였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볼까 봐 두려워 자꾸 옮겨 다녔다.

돈을 마련하여 신마산으로 나와 전세를 얻어 하숙집, 대폿집 등을 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은 젊은 여자가 대폿집하지 말고 시집을 가라고 했다.

마산에서 대폿집을 하다가 서른여섯 살에 철도의 선로꾼을 만나 서울로 와서 살림을 차렸다. 나와는 여덟 살 차이였는데 그와 별로 정분도 없었다. 서울 와서 그는 철도의 선로꾼일을 하고 나는 집안에서 살림을 했다. 그러다가 집안형편이 어려워 나도 따라다니며 노동일을 많이 했다. 그는 매일 술을 먹고 내 속을 썩였다. 그는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해서 부인과 자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속인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몇 번을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었다. 혼인신고도 안하고 살았는데 결국 그는 병들어 빗만 남기고 죽었다.

현재는 동생의 손주를 데려다 자식처럼 키우고 있다. 내가 외로워서 네 살 때부터 데려다 키웠다. 그리고 새마을 취로사업을 나가 벌어들여 산다. 또 일거리가 있을 때는 밤에 이웃집에 가서 한 시간에 1,000원씩 받고 부업을 한다. 지금 사는 방은 반지하 방으로 보증금 150만원에 월 7만원씩 낸다.

- 하도 억울해서

동네 문방구에 가서 정신대에 관해 써 붙여 놓은 것을 보았고, 또 TV에서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었다. 그래서 나도 신고해서 억울함을 면할까 싶어 1992년 6월에 신고했다. 처음에는 신고하는 것을 매우 망설였으나 지금까지 내 가슴속에만 넣고 있던 것을 다 털어놓고 나니 가슴이 후련하다.

5. 2006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의 대략적인 방향

올해는 주로 한국정부에 초점을 맞추어서 투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對 한국정부

-한일외교정립

-한일협정 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대일배상청구를 요구하는 대중적 서명운동

對 일본정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골반환 운동
- 일본의 우경화 및 군국주의 부활음모 저지 투쟁
- : 미일동맹으로 인해 한반도 핵전쟁음모, 이라크 전쟁에 자위대 파견 및 군대 문제, 평화헌법 개악 음모 저지
- 역사적 책임회피 반대
- : 역사교과서 왜곡 반대, 독도 영토권 주장, 동해 영해권 주장

국제사회연대

- 전쟁 중 여성의 폭력에 대한 반대 투쟁 연대
- 교포사회나 외국에 증언대회 진행
- V DAY⁶⁾방한 (버자이너 모놀로그 한국공연)
- 유엔 인권위 등을 통해 일본 압박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 사업

현재 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과 모금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whrmuseum.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매주 마다 수요시위 진행

주요 사업

- 매달 한 번 씩 테마를 가진 수요시위 개최
- 다각도로 피해자 할머니들 지원사업
- 전쟁과 여성인권 관련 세미나 개최 (3월 - 9월)
 - 3월 주제 : 전쟁과 여성 그리고 평화
 - 강사 : 김엘리 (성균관대학교 강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책위원장)
 - 일시 및 시간 : 2006년 3월 17일(금) 오후 7시
 - 참석대상 : 평화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모든 이
 - 장소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교육관 (5호선 서대문 역 1번 출구)
 - 연락처 : 02-392-5252
 - 주관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역사속의 전쟁, 전쟁속의 여성 세미나” 일정표 (장소와 시간은 동일)

6)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한 운동을 펴고 있는 국제 비영리단체 ‘브이 데이’(V-Day)

월 일	주 제	강 사
3월 17일	전쟁과 여성, 그리고 평화	김엘리
4월 7일	일본의 침략전쟁과 여성동원, 일본군'위안부'	박정애
5월 4일	한국전쟁과 여성	김은경
6월 2일	미군주둔과 기지촌	새움터
7월 7일	베트남 전쟁과 여성, 그리고 한국파병	김현아
8월 4일	한국사회의 군대문화와 여성	권인숙
9월 1일	오늘의 전쟁과 여성	이진숙 기자 (mbc)

6. 우리의 과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상처와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깊은 문제점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 과거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며, 청산하지 않을 시 반복된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 책동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의 그 때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며, 이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을 시에는 전쟁에서의 여성폭력과 인권 침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2월 19일 몇 년간 투병하시던 박두리 할머니가 가족의 따뜻한 품에 안겨보시지 못하고 차가운 땅 속으로 묻히게 되었다. 작년에 이어 할머니들이 17분이나 돌아가셨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순히 한 번 알고 가슴 아파 하는 문제이거나, 일본여성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자는 개념 없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산하지 못한 과거를 가진 민족의 아픔이자, 상상 못할 고통을 겪은 성폭력 생존자들의 문제로 폭을 넓혀보자.

피해자가 있는 운동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하다.

국제사회에서는 할머니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그 안에서의 투쟁을 통해 한국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민족의 문제 뿐 아니라 여성인권을 제기하고 이슈화 시키고 있다.

피해자 할머니들인 1세대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빨리 우리 학생들이 힘을 합쳐 투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요원한 것은 없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게 되고 자기 주변을 통해 실천해나갈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없다.

일본군 '위안부' 해결에 모두 나서자!

